

선교 편지 (2021년 4월) -고동욱 장로, 고사라 집사(일본 선교사)-

을신년스럽게 추운 일본에서의 첫번째 겨울이 지나고, 벚꽃이 피고지는 따뜻한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할 무렵 일본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벌써 일년을 넘어 이년째되는 해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년이 지난 지금도 코로나는 일본인들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일년을 연기하면 될것 같던 올림픽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채 불안불안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을 잃은 것 같지만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하는 시간이되었고, 예배의 의미, 교회의 의미, 신앙생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 주신 축복과 기회의 시간이 었음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를 싫어하던 일본교회들이 온라인으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가정교회들을 시작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일본어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한국어를 할줄 알면 일본어를 쉽게 배울수가 있다고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할수록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저희 일본어 선생님은 89세 일본인으로 대만에서 선교사로 15년간 계시면서 대학에서 일본어를 가르치신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작년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홀로 지내고 계셨는데, 저희가 대만에서 공부한 선교사라고 듣고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제는 매주 토요일 같이 점심을 먹으며 일본어로 대화를 하고 일본어 어린이 성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부부에게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를 저희에게 일본어 선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일본어 공부가 종종 조바심도 나고 의욕만 앞서기도 하지만 언젠가 일본인에게 일본어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월에는 Noah International School 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예배에서 일본어로 짧게 설교를 했습니다.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일본어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목표에 한걸음 가까이 가게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어에 진척이 있을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일대일 사역

일대일 사역을 하고 있는 시계상을 소개하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시계상은 요코하마에서 태어나고 자란 형제입니다. 50대 중반이고 독신입니다. 조울증을 앓고 있어서 감정조절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에 단기선교로 오신 분을 통해 Burning Heart 공동체를 나오게 되고 저와도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교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젊은시절 호주와 캐나다에 살았고 영어 공부를 계속해서 영어 소통이 가능합니다. 매주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저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계상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들이 바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매주 시계상을 만나며 조금씩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시계상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노아 인터네셔널 학교

일본은 4월에 학년을 시작해서 다음해 3월에 마칩니다. 3월중순에 모든 것을 마치고 봄방학에 들어가서 4월 초에 새학기가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새학기 준비가 한창입니다. 저희는 작년 5월부터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해동안 아이들과 많이 친해졌고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영어가 되는 고학년 아이들은 조금씩 진로나 미래에 대해 물어오기도 하고 걱정거리도 묻곤 합니다. 저희가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저희에게 좋은 일본어 선생님이 되곤 합니다. 믿지 않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변하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희에게 큰 기쁨입니다.

오사카 비전트립

올해 8월에 있을 오사카 40일 기도와 예배모임을 위해 저희 부부가 8일 기간으로 오사카에 비전트립을 다녀 왔습니다. 기도중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부부가 오사카에 40일 기도모임을 준비하기위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를 방문하고, 어떤 장소를 찾아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저희부부가 만나야 할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셨고 저희가 가야할곳과 머물러야 할곳 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일본교회와 선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이땅을 위해 오랫동안 역사하고 계셨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비전트립

이후에도 아직 정확한 모임 장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곳과 부르신 자들을 보내주실 것을 확신하며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가 저희부부가 일본에 정착하는 시기였다면, 이번 오사카 트립 통해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한해 어떻게 저희의 지경이 넓어 질게 될지, 또 그로 인해 어떤 사역들이 열리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기타 소식

- 하와이 출신 일본인 4 세인 선 선교사님이 낚을 집을 구입하셔서 집을 수리하고 꾸미는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선 선교사님은 목사님이 없는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며 섬기시고 있습니다. 낚은 집을 구입하셔서 젊은 일본인들이 잠시 머물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같이 기도하며 수리하고 좋은 시간을 갖었습니다.
- 노비노비 노바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영상을 찍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내년 학기에도 계속 수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간단한 영어성경암송 요청도 있어서 믿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 혼고다이 그리스도 교회라는 일본교회를 저희부부가 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셀그룹을 돕고 있는데 2 월에 딸기따기 체험을 같이 다녀 왔습니다. 여러 셀그룹이 같이 했는데 친구들도 초대하게 되서 50 명 정도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었습니다.
- '하나카코'라는 동네 커뮤니티센터에서 영어를 수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무한정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믿지 않는 이웃들과 교재를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 YWAM 을 통해서 세금해택을 받을수 있는 재정 후원 어카운트가 생겼습니다.

기도제목

-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아주 오래된 경차입니다. 장거리를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부부 이외에는 두명밖에 태울수 없어서 앞으로 사역하는데 조금 큰 차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역에 필요한 차량으로 바꿀수 있도록
- 8 월에 있을 오사카 40 일 기도와 예배 모임이 잘 진행될수 있도록
- 노아 인터네셔널 학교에서 새 학기를 잘 시작할수 있도록

- 요코하마에 YWAM 베이스를 시작하는 일이 잘 시작될수 있도록
- 일본어에 많은 진척이 있을수 있도록
- 미국에 있는 두 아이들이 대학 마지막 학년을 잘 마칠수 있도록

